'하트시그널3' 박지현 "김강열♥과 3개월간 연락만"

"방송후 프랜차이즈 카페 더 이상 못 가게돼"

김강열과 재회…"해외에 떨어져있는 느낌"

박지현과 김강열이 '하트시그널3' 후일담을 전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채널A '하트시그널3'에서는 최종선택까지 모두 끝난 후 다시 만난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박지현은 근황에 대해 "일단 프랜차이즈 카페를 더 이상 못 가게 됐다. 어느 한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딱 알아보시고 '하트시그널?' 이라고 하시더라.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 6팀을 사진을 다 찍어주고 도망나왔다. '나는 인우씨가 괜찮은데, 잘 생각해보라' 고 하시기도 했다. 나를 좋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마웠다"라며 달라진 일상을 고백했다.

가족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그는 " 가족들이 더 난리다. 저희 부모님은 1일 2하트시그널' 을 한다. 저희 오빠는 앉아서 보질 않는다. 계속 서서 본다. 설레서 소리지르면서 본다. '과몰입' 을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는 박지현의 최종 커플 상대인 김강열로 "아무래도 저에게 쭉 직진한 강열오빠를 제일 좋아한다. 정말 저에게만 직진했더라. 그래서 좋아하시더라"라고 답했다.

박지현은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회전목마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제일 명장면이었던 것 같다. 그때 나도 약간 장난 느낌이고 그 오빠도 그런 느낌이다. 서로 재미있게 잘 놀고 '이 순간이 재미있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회전목마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 그때부터 그 오빠와 제가 재미있음에서 '설렘' 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강열의) '난 너랑 이거 하러 나온 것 같아' 는 '심쿵' 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나는 너만 볼 거야' 라는 것 아니냐.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말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모컨을 끄고 싶은 순간이 있었냐' 는 물음에는 '하트시그널3' 화제의 장면인 '핫팩' 신을 꼽았다. 김강열이 핫팩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은 장면이었다.

박지현은 "그때 내 표정이 왜 그랬을까. 다른 건 잘 봤는데 그건 진짜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 내가 그냥 너무 얼고 동공지진 나고 그거는 진짜 못 보겠더라. 그거 한 번 봤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켜면 뜬다. 온 국민이 내가 손을 잡는 걸 본 것 아닌가"라며 쑥스러워 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는 거기에 몰입을 했지.시청자들이 나를 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이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다. 방송에서 그 표정을 내가 직접 확인하니까..."라고 덧붙였다.

천인우의 마음을 거절한 장면에 대해서는 "내가 엉엉 울더라. 내가 그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운지 몰랐다. 그럴 만 했던 것 같다. (김강열과) 마지막 데이트 때 나는 충분히 확신을 받았고, 나도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된 상태여서 그 상황에서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많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한 것을 아는데 그 상황에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오빠를 정리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 오빠를 좋아하지 않았나. 서로 노력한 것도 있었고 그 오빠가 저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있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밖에서는 못 보겠다 싶었고 좋았던 것도 생각나고 그런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고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김강열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말 그대로 저는 나가서 연애를 하고 싶었다. 최종 선택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었다. 강열씨를 데이트를 여러 번 했는데 같이 있는 순간이 즐겁고 그 순간마다 좋아서 이 사람과 만나면 재미있는 연애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강열오빠는 다시 못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 사람을 다시 못 보게 된다면 많이 아쉬울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는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다. 내가 조금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더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확신을 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바뀐 것 같다"며 '하트시그널3' 에 출연하며 달라진 점을 말했다.

김강열과 박지현은 방송 상 최종선택이 끝난 후 다시 재회했다. 박지현은 "연락만 3개월 했잖아. 이상한 느낌이었어. 해외에 떨어져있는 느낌이었다"라며 쑥스러워 했다. 그는 "프로그램 특성상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숨어 다니면서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냥 (안 만났다)" 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을 솔직히 고백하며 티격태격 하다가도 서로에 대한 감출 수 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김강열은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며 박지현과 함께 방송 밖 진짜 연애를 향해 나아갔다.

이경규, 권해봄PD와 첫 디지털콘텐츠 도전…'찐경규' 론칭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 스튜디오로 옮긴 후 만드는 첫 콘텐츠

방송인 이경규가 권해봄 PD와 손을 잡고 첫 디지털콘텐츠 예능에 도전한다.

카카오M 측은 16일 "이경규의 첫 디지털콘텐츠 도전을 담은 하프 리얼리티 예능 '찐경규' 를 기획, 제작한다"라고 밝혔다.

'찐경규' 는 올해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긴 권해봄 PD가 만드는 첫 콘텐츠로, '황금어장' '비긴어게인' 을 연출한 오윤환 제작총괄이 CP로 참여한다. 7월말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와 함께 선보이는 새로운 영상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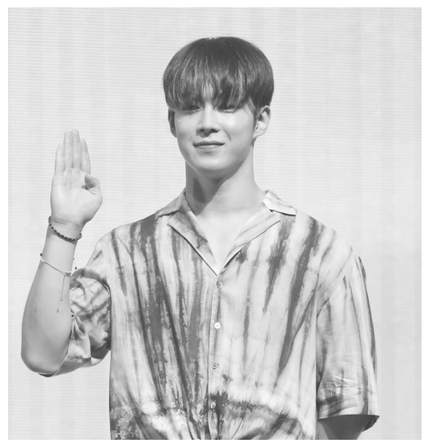
'찐경규' 는 TV에서 디지털로 영역 확장에 나선 이경규가 '전담PD' 로 배정된 모르모트와 제작진을 진두지휘하며 펼쳐지는 파란만장 디지털 예능 도전기다. 이경규가 1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들어 디지털계를 평정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도전장을 내밀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담는다.

이경규는 데뷔 40년차의 연륜, 감독으로서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특유의 직설을 쏟아내며, 첫 작품인만큼 연출 욕심을 내는 권해봄 PD와 티격태격 케미를 발산, 그야말로 '찐웃음' 을 선사할 계획이다. 본촬영 준비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누가 연출인지 출연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인 티키타카를 선보여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과거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을 통해 얼굴을 알리며 얻은 '모르모트' 라는 닉네임으로 출연하는 권해봄 PD 역시 디지털콘텐츠는 처음인만큼,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예능은 과연 어떻게 탄생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권해봄 PD는 " '찐경규' 를 통해 이경규 선배님이 TV를 넘어 디지털 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SF9 다원, 학폭 의혹→소속사 측 "사실무근"



그룹 SF9 멤버 다원(25 · 본명 이상혁)의 2차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16일 SF9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누리꾼이 제기한 다원 학폭 2차 의혹과 관련, 뉴스1에 "사실무근"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다원의 동창이라고 밝힌 B씨는 15일 자신의 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다원에게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14일 다원은 1차 학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A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다원에게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몇몇 에피소드를 적었다. 이와 함께 A씨는 증거를 요구하는 팬들에게 "10년이 지났는데 증거가 어딨겠냐"며 관련 졸업 앨범을 인증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15일 뉴스1에 "제기된 주장에 대해 확인해봤고 (글쓴이가) 다원과 학창시절을 보낸 아는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계정을 삭제한 상황이다.

방탄소년단 '아이돌' 뮤비 7억뷰 돌파

통산 네 번째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이돌' (IDOL) 뮤직비디오가 조회 수 7억뷰를 돌파했다.

2018년 8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LOVE YOURSELF 結 'Answer')의 타이틀곡 '아이돌'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7월 16일 오전 11시45분경께 7억 건을 넘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DNA'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 '페이크 러브' (FAKE LOVE)에 이어 통산 4번째 7억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아이돌' 은 공개 직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66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또한, 미국 빌보드 '핫100' 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에서는 21위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방탄소년단은 또 '아이돌' 뮤직비디오로 2018년 11월에 개최된 미국 음악 및 영화, TV 분야 시상식 '2018 E! People's Choice Awards' 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Music Video of 2018)'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연상호 집필 '방법' 영화화…엄지원 · 정지소 · 오윤아 · 이설 주연

오는 9월 크랭크인

올해 3월 인기리에 종영했던 tvN 드라마 '방법' 이 '방법: 재차의' 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다.

'방법' 은 한자 이름, 사진, 소지품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와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가 IT 대기업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로, 영화 '방법: 재차의' 는 드라마의 세계관을 이어간다.

드라마 '방법' 에서 투톱 활약을 펼쳤던 엄지원과 정지소가 각각 기자 임진희, 소녀 방법사 백소진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드라마 '방법' 에서 함께 진종현 (성동일 분) 회장에 맞서며 악을 처단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배우 오윤아와 이설이 새롭게 합류한다.

오윤아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6일 뉴스1에 "출연을 긍정 검토 중" 이라고 밝혔고, 이설 소속사 링크 매니지먼트도 "조심스럽지만 확정 단계"라고 말했다.

'방법' 은 드라마에 이어 영화도 연상호 감독이 집필하고 김용완 감독이 연출한다. 드라마를 통해 '방법' 세계관 구축에 성공한 두 사람이 '재차의' 라는 새로운 소재를 어떻게 풀어갈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

'우아한 친구들' 완벽한 부부의 균열 시작

'우아한 친구들' 유준상과 송윤아의 일상이 전복된다.

JTBC 새 금토드라마 '우아한 친구들' (극본 박효연 김경선/ 연출 송현욱 박소연) 측은 16일 행복한 일상을 파고든 의심과 불안으로 균열이 찾아온 안궁철(유준상 분) 남정해(송윤아 분)의 달라진 분위기를 포착한 스틸컷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처음 방송된 '우아한 친구들' 은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긴 20년 지기 친구들과 그 부부들의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인생의 하프타임에 접어든 중년의 웃픈 일상, 이를 비집고 들어온 균열과 변화를 몰입감 있게 그리며 색다른 차원의 '현실 밀착' 미스터리의 탄생을 알렸다.

지난 방송에서는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숨진 천만식(김원해 분)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명숙(김지영 분)은 남편과 남정해의 내연 관계를 의심했고, 안궁철은 혼란에 휩싸였다. 20년 만에 나타난 백해숙(한다감 분)의 등장도 거센 폭풍을 몰고 왔다. 안궁철을 향한 깜짝 고백은 아슬했고, 남정해와의 재회 역시 서늘했다. 무엇보다 남정해의 위기는 충격을 안겼다. 낯선 이의 침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정해와 이를 바라보는 주강산(이태환 분)의 싸늘한 미소가 파란을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안궁철 남정해 부부에게 위태로운 변화가 감지됐다. 공개된 스틸컷 속 마주한 두 사람의 눈빛에는 깊은 의심과 두려움이 담겨있다. 부드럽고 따스했던 안궁철의 미소는 사라졌고, 누구보다 당차고 강인했던 남정해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눈길을 끈다.

백해숙 천만식과 얽힌 묘한 관계부터 주강산의 정체까지, 인생 최대 위기와 갈등을 겪게 된 부부의 균열이 긴장감을 유발한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안궁철과 애처롭게 그를 붙잡는 남정해, 과연 평화로운 일상을 파고든 균열의 실체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인다.